

“ ‘문화·예술’ 담은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



2022 새해설계

서대석 서구청장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고, 위기의 민생과 경제를 풀며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뜻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서대석 광주시 서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소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더 크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정장은 자율과 참여, 마을과 현장 중심의 주민이 주인인 자치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구정의 틀과 행정서비스를 수요자인

서구형 자치모델 구축...생활정치 실현 목표

포용적 복지안전망 강화·탄소중립도시 구현

주민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서구형 자치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주민들과 맞닿아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무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양하며, 주민참여 예산으로 84억원을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사회적 합의를 모은 의제가 구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자치구조’의 생활 정치를 실현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서구형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보장협의체”를 주축으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 위기가구발굴 단 등 민·관 협력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AI 기반 돌봄서비스 제공과 AI 지능형 통합돌봄케어모델 구축을 통해 서구형 통합복지모델을 완성 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 지원 등 18억원을 투입해 노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정장은 기후위기에 대응 관리를 통해



“2045 서구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놔다. 광주시 2045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로드맵에 발맞춰 서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정장은 “올해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삶의 틀을 바꾸고 있으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는 상황 속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구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과 32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겠다”며 “전기이륜차 대여와 맞춤형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탄소 저감정책으로 2045 탄소중립도시 서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일상회복지원금 17일부터 접수

광주시 서구는 오는 17일부터 광주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 외국국적의 동포다.

특히 신생아에 대해서도 기준시점 현재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이며, 신청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구는 지난 7일 기초수급에 대해 지급을 마쳤으며, 17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과 선불형 신용카드 지급 신청을 받는다. 카드충전은 다음달 18일까지 홈페이지(광주일상회복지원금.kr)를 통해 온라인 포인트 충전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지급기준일 당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 문화강좌 영상 제작

광주시 서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강좌 영상을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동물 발생과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반려인들에 대한 교육 또는 안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구는 팻타겟 준수사항, 간식 주는 법, 올바른 산책하기, 사회성 교육 등 유용한 지식을 총 7개 주제로 구성해 반려동물 문화강좌 영상을 제작하고 서구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내달부터 ‘구민안전보험’ 운영

광주시 서구는 오는 2월부터 구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재난에 따른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구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장제도다. 보장내용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 이용 중 상해사망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등 재난사고부터 물놀이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생활사고에 이르기까지 총 10개 항목이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해당 항목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후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본격화

24억 예산 투입...78개 분야 185명 참여

광주시 서구가 2022년 임인년 한해도 ‘함께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3억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총 78개 분야의 참여자 185명이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환경정리, 발열체크, 세광학교 복지연계형 업무에 참여하는 등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특히 참여자 중 농아인 2명이 서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15개소를 순회하면서

소리없는 메아리 ‘두근두근 수어교실’을 3년째 운영하고 있어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이들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이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 지원을 통해 더 함께 잘사는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금호1동 주민자치회, 격려금 기탁

광주시 서구는 지난 11일 금호1동 주민자치회로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금(111만원)을 전달받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구 제공

‘서구톡톡’ 구정 참여 중간다리 역할

정책제안·불편신고 등 간소화

광주시 서구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서구톡톡’이 시민들의 구정 참여를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톡톡은 정책 제안부터 토론, 생활불편신고, 온라인 투표까지 광주 서구의 구정운영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든 양방향 온라인 정책 플랫폼이다.

지난 2020년 11월 서구톡톡을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60여 건의 다양한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지난해 12월 24일에 윤리초교 학생들이 건의한 ‘윤리초등학교에서 동부센터

레빌 아파트 구간에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안에 대해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안은 윤리초교 5학년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거쳐 서구톡톡에 게시한 이후, 지금까지 31명의 공감을 얻어 실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통학로 주변 횡단보도 신설 ▲불법주정차 방지용 시선유도봉 설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 홍보·단속 ▲풍암동행정복지센터와 윤리초교의 통학로 주변 정결활동 및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승현 기자

화정3동 ‘화삼골 안전 약속길’ 조성

여성·아동 안전 마을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광주시 서구는 최근 ‘2021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광주 서부경찰서, 화정3동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인근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식행사와 안전마을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

했고, 이를 바탕으로 화삼골(화정3동) 안전 약속길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낙후된 골목환경으로 인해 범죄 노출 위험이 있는 화정3동 광주여고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 ▲안전지도 및 안전번호판 정비 ▲로고제 및 비상벨 설치 ▲안전벽화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한 골목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와 함께 내실있는 안전골목 조성을 위해 서구정 여성가족과, 화정3동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서

부경찰서, 여성친화 컨설턴트가 참여해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안전분과를 구성하고 골목모니터링, 주민설명회, 안전역량 교육, 디자인 워크숍 등도 병행했다.

서구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중심으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해 안전마을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전마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에 취약한 골목들을 발굴·개선해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전남매일 연중 캠페인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광주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평소 살던집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돌봄전화 ☎062-350-4000